

2009 광주시 모범기사 대상 권혁대씨

장애인들이 돕고 수험생 운송.. 20년째 손발 역할

‘장애인과 분기별 나들이, 장애학생 수험생 운송, 장애인단체 행사 진행 및 봉사, 교통안전 캠페인...’

20년째 영업용 택시를 모는 권혁대(50·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씨의 봉사기록이다. 권씨는 17년째 79㎡(24평) 크기의 서민 아파트에 살면서 장애인의 손발이 돼 주고 있다.

울 수능시험날도 다리가 불편한 여학생을 쌍촌동에서 고사장인 선명학교까지 실어다 줬다. 고사장 입구에서 택시를 세운 뒤 휠체어에 학생을 앉히고 책상 앞까지 밀어 줬다. 두 손을 불끈 쥐고 “힘내. 화이팅”이라고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권씨는 1995년부터 장애를 가진 수험생을 해마다 고사장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 5~6년 전부터는 장애가 있는 노인을 택시에 태우고 분기별로 월출산이며 보성 녹차밭 등을 돌며 바깥 나들이를 돕고 있다.

영업용 택시기사라는 게 ‘뺨한데’ 개인택시도 아닌 영업용 택시기사가 무슨 봉사활동을 하나라는 굵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봉사활동 초기에는 부인 이희숙(50)씨도 “월급도 100만원 될까 말까 하는데 무슨 봉사활동.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 봅시다”라고 했다.

봉사활동을 한 지 15년 정도 흘렀을까. 권씨는 “김기자님, 아 글세 봉사활동도 전염병처럼 주



‘2009 광주시 모범기사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권혁대씨가 24일 자신이 모는 영업용 택시에서 밝게 웃고 있다.

변에 퍼지나봐요. 예전엔 ‘당신 건강도 축내고 돈 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며 봉사활동을 반대했던 집사람이 이제는 저보다 더 적극”이라고 부인 자랑을 했다.

월곡동에서 ‘천하일품’이라는 고깃집을 운영

하는 부인 이희숙씨도 가게 근처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식사대접을 하는가 하면 인근에 권씨의 선정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권씨는 전했다.

1990년 2월 1일자로 (합)일원운수에 입사한

권씨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돕기로 마음 먹은 것은 그의 나이가 서른을 막 넘겼을 무렵. 외가인 영암에서 외숙모가 사촌형님(작고)의 병수발을 돕는 것을 본 뒤부터다.

“형님은 태어날 때부터 허반신을 거의 못 썼어요. 나이 든 숙모가 시골집서 형님 똥오줌을 받아내는 것 보는데... ‘아이고, 가족 없는 장애인은 누가 돌본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1992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임차인 대표를 맡으면서 ‘장애인과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주변 시선과 입주민 스스로 가지는 일종의 패배의식을 없애기 위해 아파트 담장을 꾸렸다. 권씨는 “당시 300만원을 주고 간판 업체에게 철로 된 명인을 파달라고 해서 담장 40 곳에 ‘명인’을 붙였는데 주변 반응이 좋았었다”고 회상했다.

20년 무사고, 교통법규 위반 전무, 교통안전 캠페인은 자랑할 일이 못 된다는 권씨는 다음달 2일 광주장애인무료차량봉사회와 광주시가 마련한 ‘2009 광주시 모범기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다.

권씨는 “처음 몰았던 스티브 택시부터 지금까지 택시는 20~30대 바꿨지만,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상무축구단·현대카드 ‘사랑의 쌀’ 전달



광주상무축구단과 현대카드가 24일 1특점당 쌀 20kg 한 가마를 적립하는 ‘사랑의 쌀 사랑의 쌀’ 이벤트를 통해 적립한 쌀 17가마(340kg)와 선수단 쌀인불, 축구공 등을 아동 복지시설 광주 영신원에 전달했다.

김수영문학상에 김경주씨

㈜민음사와 계간 ‘세계의 문학’이 주관하는 제28회 김수영문학상 수상자로 김경주(33)시인이 24일 선정됐다. 수상작은 ‘연두의 시제’ 외 4편.

광주 출신의 김 시인은 2003년 대한매일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기다’를 냈다.

심사위원들은 “김경주의 시에서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수많은 순간들은 서로 결합하고 스며들고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며 “기억과 감각에서 이 순간들을 자유롭게 불러내고 결합시켜 통일된 미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했다.

상금은 1천만 원이며 시상식은 내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출판문화센터 내 민음사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내달 11일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인수 광주과기원 교수 한림원 정회원에 선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김인수 교수가 2009년 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김교수는 광주과기원 초대 부임 교수로 광주과기원이 국내 정상급 연구중심 대학이 되도록 지대한 공헌을 했고, 환경공학분야의 후진양성에 매진하였으며, 특히 수 처리 공학 분야에서 국내외에 그 역량을 강화하는데 선두 역할을 담당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994년 설립돼 과학기술에 전문적인 경륜과 실경을 가진 석학들을 회원으로 하여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가의 모임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사

◆노동부
▷과장급 정보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장 홍진표

현직 공무원이 건축시공 기술사 합격

전남도청 이증호씨

현직 공무원이 된 이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건축분야 기술자격 중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전남도 관광문화공공디자인과 이증호(41·시설7급)씨는 지난 23일 발표한 제89회 국가기술자격 최종시험에서 건축시공기술사에 합격, 도청 내 유일한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가 됐다.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축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지식과 기술, 풍부한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매년 시험을 통해 1차 필기시험에서 응시자의 10% 내외만이 합격하고 실기시험에서도 응시자 합격률이 60%대에 못 미치는 어려운 시험이다. 이씨는 그동안 도청 내 신생 조직인 공공디자인과에 근무하면서 퇴근 후 틈틈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이씨는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시간 관리하기가 힘들어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했다”며 “어려울 때마다 동료 선배 직원들의 가슴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축의 3요소인 ‘구조·기능·미’에 충실하면서 아름다운 건축, 특히 녹색디자인이 데 일조하고 싶다”며 “전남의 도시, 시설물, 가로수 등에 대해 녹색디자인 개념을 접목시킴으로써 마을과 도시를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가꿔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석산고, 전남대 건축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난 1997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도청이전본부, 복구지원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등을 거쳐 현재 공공디자인과에서 섬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입로 경관개설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김병식 초당대 총장 ‘공학 혁신상’ 수상

김병식 초당대학교 총장이 최근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09년 추계 공학교육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공학 교육 혁신에 공헌한 공로로 ‘제1회 이기준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기준 공학혁신상’은 우리나라 공학계 인사중 공학교육혁신을 통해 신학 협력 발전과 공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르기 위해 올해 신설된 상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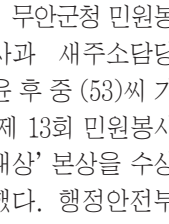
조범준 조선대 교수 멀티미디어학회장에

조범준 조선대 교수(전 자정보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가 최근 속령여대에서 열린 2009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멀티미디어학회는 지난 1997년 설립된 이래 회원이 4천명에 이르는 국내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 및 산업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안군청 윤후중씨 민원봉사 대상 수상



무안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조담당원 후 중(53)씨가 ‘제13회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원봉사 대상은 민원행정 발전에 앞장선 지방공무원을 표창하는 상이다. 윤씨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맡아오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새주소 시설물을 제작·보급에 공로를 받았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프로 골퍼’ 전문건설협 전남도회 이봉철 실장 ‘필드에서 이기는...’ 골프 서적 냈다

“골프가 좋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이봉철(51)계도계실장이 최근 실전 골프 교재를 펴냈다. 이 실장은 골프 애호가를 넘어선 ‘프로 골퍼’로, 바쁜 시간을 쪼개 아마추어 골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모아 책을 냈다.

그는 “시중에 나온 골프서적 가운데 실전에서 활용가능한 책이 별로 없고 내용이 빈약하다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많았다”면서 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10년 9승 절대 고수의 비밀 레슨’이라는 부제가 붙은 ‘필드에서 이기는 골퍼’라는 제목처럼 노장 프로 골퍼가 실제 승부에서 이기는 골프 테크닉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실장은 책에서 골퍼의 기본인 스윙 및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골프 성적이 좋지 않은 골퍼들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스윙의 경우 기복이 없이 일관되어야 하며 각각 스윙보다 기계적인 스윙을 하려는 게 이 실장의 조언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스윙을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도 필수라고 했다.

책에서는 스윙 총정리를 비롯, 어드레스부터 테이크 어웨이,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스루와 피니시 등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골퍼 전문 용어도 알기 쉽게 풀었다. 특히 흔히 골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 설명을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경기지도학과와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했고 세계프로골프협회 정회원, 티칭프로골프연맹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이성수(전 광주우체국물물장)·이덕희씨 장남 창근군 문두식(전 국군기무사령관)·조충자씨 장녀 서영양=28일(토) 오후 5시 서울 센트럴시티 웨딩&컨벤션센터 6층(밀레니엄홀)

▲정동주·강우남씨 장남 회상군 조윤희·김정자씨 차녀 지영양=28(토) 낮 12시30분 경복궁 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박준혁·이경순씨 장남 천룡군 황병택·윤양미씨 장녀 경미양=28(토) 낮 12시30분 경복궁 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장종철·강윤례씨 장남 우석(STX중공업)군 홍용식(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유영희씨 장녀 지혜(용봉중학교 교사)양=29일(일) 낮 12시 웨딩의 전당 금호30호(아시아

나눔

동창·동문회

▲제8회 전남대 사학과 동문의 밤=28일(토) 오후 5시30분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5층 연회장. 062-362-0011.

▲광주 동신여고 총동창회(회장 박명숙)=28일(토) 오후 5시 무등파크호텔 3층. 011-602-1573.

▲재광주·전남 한양대총동문(회장 최재훈 남회토건 대표) 한양인의 밤=12월1일(화) 오후 6시30분 서구 농성동 갤러리아컨벤션홀. 062-225-3133.

향우회

▲재광 구례읍 11월 친목회(회장 김성권)=26일(목) 오후 7시 KT북광주전화국 앞 지리산식당. 062-

알림

▲재광강진군 신전면 향우회(회장 이길재) 창립총회=27일(금) 오후 6시 서구 농성동 메리어트웨딩홀. 016-680-8065.

▲칠칠회(회장 김창호)=27일(금) 오후 6시 동구 호남동 미송식당. 062-223-6322.

▲동심회(회장 김체열) 정기총회=12월1일(화) 오후 6시 이조한정식. 062-222-2225.

중진회

▲진양(진주) 하씨 대시간강 중중회(회장 하권량) 시모제=25일(수) 오전 10시 정읍시 신월동 선산 010-3607-3369.

▲충주박씨 천성공중회(회장 박환규) 정기총회=12월1일(화) 서구 서창동 천성공 제각.

모집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 서구 우산동 자담역리학회. 062-263-0208.

▲회귀화폐 전시회=12월31일까지 광주공랑지하철역 역무실 앞. 은대(세계최초로 화폐를 사용한 시대) 때 돌로 만든 골짜기화 등 33년간 직접 수집한 화폐 500개 전시. 문의 박용권(011-604-6132).

▲용마 축구클럽 회원 모집=건강한 생활 추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광주장애인복지관 12월 컴퓨터 무료 교육생 모집=30일까지 모집. 포토샵 심화, 한글2007, 플래시응용, OA응용. 062-513-0977.

▲마술회치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2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사·학생 모집=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1-9440-2512.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부음

▲이대료(전 전남교육위원회 의장)씨 별세 하창·현배·정숙·요춘·효춘·희숙·봉숙씨 부친상=발인 26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용규(산림청 항공관리본부 영암산림 항공관리소 조종사)씨 별세 강화란씨 상배 중현·혜현씨 부친상=발인 25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이홍상(산림청 항공관리본부 영암산림 항공관리소 조종사)씨 별세 이선희씨 상배 지영·도영씨 부친상=발인 25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정관옥씨 별세 일규·월식·월남·월숙·월덕·월향씨 부친상=발인 25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이대령(전 전남교육위원회 의장)씨 별세 하창·현배·정숙·요춘·효춘·희숙·봉숙씨 부친상=발인 26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정관옥씨 별세 일규·월식·월남·월숙·월덕·월향씨 부친상=발인 25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두번 술로개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선진국형 프레스 프리드 현대중앙상조 가임폰트 1566-4499